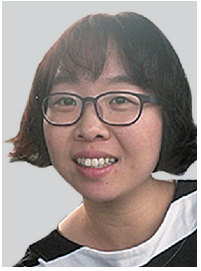
성인지적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 다시 보기의 필요성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모두가 산재를 당합니다"에 감춰진 목소리

어느 날 노동조합 안전보건 담당 활동가에게 해당 산업의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산재 문제가 어떤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 잠시 고민하더니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모두 산업재해를 당합니다"라고 답했다. 재해율(근로자수 대비 재해자수)이 높은 업종이기에 맞는 말이다 싶었다. 그러다 불현듯 면세점 판매 여성 노동자를 만난 경험이 떠올랐다. 화장실에 한 번 가려면 그 큰 면세점을 얼마나 빙빙 둘러 가야 하는지, 부족한 인력 탓에 참다 참다 다녀오는 게 얼마나 잦은 일인지, 그러다 방광염에 걸려 호되게 고생한 일들까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 장면은 '성별과 관계없이 산재 문제가 심각하다'는 당연해 보이는 전제 뒤에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감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하는 일이 다르거나, 일하다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젠더 차이를 감지하지 못할 경우, 그 부담과 책임이 전적으로 한쪽 성별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실제 남성은 중량물을 취급하느라 근골격계 질환에 걸리지만, 비교적 덜 무거운 무게를 다루는 여성도 반복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걸릴 수 있다. 즉, 우리 사회가 일터의 위험을 제조업, 건설업과 같은 남성이 다수인 업종과 직종을 기준으로 간주했을 때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위험을 재정의하자

캐나다의 인간공학자 캐런 메싱은 「반쪽의 과학」(한울, 2021)에서 사람들은 여성을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여성이 하는 일은 안전하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여성이 하는 작업과 관련한 건강 문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또한 산재 보상체계가 지금까지 남성이 많은 직종과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의 상해와 질환이 보상에서 소외되었으며, 여성의 건강 문제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심각성이 제기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또다시 충분한 인식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봤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고통으로 인한 결과는 단순하지 않다.

2021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여성 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 실태 및 건강 영향 연구'에 따르면 화장실이 노동자의 건강에 중요한 노동조건이라는 응답에 대해 90%가 넘는 여성 노동자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응답자 절반 가까이인 422명(48.3%)이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건강 영향 문제를 느꼈다고 응답했다. 중요한 노동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권리 보장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실 이용 가능 정도별 유병률의 경우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고 한 군에서 방광염이 58명(31.2%), 과민성 방광이 28명(15.1%), 만성변비가 20명(10.7%)으로 확인됐으며 이외에도 질염 및 생식기 주변부 염증도 63명(34.2%)이 겪었다. 특히 이동·방문 노동자의 경우 일정한 공간 근무자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 화장실 문제의 해결은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의 공동 논의와 책임이 필요함이 확인되기도 했다.

신체적 건강 영향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323명(64.5%)이 불안감을 느꼈고, 133명(26.5%)이 화·짜증·분노를 느꼈으며, 104명(20.8%)은 우울감을 느꼈다. 문제는 여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터는 모든 노동자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건설 현장의 남성 노동자들 역시 외부에 노출된 야외 소변기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성별과 젠더에 따라 경험하는 안전보건 문제가 차이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성인지적 관점으로 산업안전보건 영역을 본다는 것은 지금의 작업표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과정이다. 젠더 고정관념과 성별 분업 하에서 남성은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과로를 하게 되고, 한편에선 '남성'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폭력의 대상이 된다. 높은 노동강도와 비민주적인 조직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남성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는 사람, 여성, 청소년, 고령, 장애인 등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훼손한다. 그렇기에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라는 감각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라는 감각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